

안중근. 그리고 하얼빈, 뤼순

이종형 시인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좌표가 찍힌 장소들은 많습디다만 그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한 곳을 선택하라면 단연 중국 동북지방의 중심도시 하얼빈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인 1909년 10월 하얼빈역에서 울려 퍼진 세 발의 총성. 일제의 강점에 항거하는 독립투쟁에 본격적인 불씨를 당겼을 뿐 아니라, 백년이 훨씬 지난 오늘까지 한국인의 정신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쾌거. 그건 바로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저격 사건이었습니다.

올해는 3.1만세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백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더욱 선연해지는 역사의 이정표를 따라 중국 북만주 일대의 독립투쟁 발자취를 동료 작가들과 함께 더듬었습니다. 제주에서 다롄을 시작으로 하얼빈, 무단장, 쑤이퉁허 등 멀게는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북쪽 도시부터 다시 다롄, 뤼순 등 서해와 인접한 도시까지 일주일간 4천여 km를 오르내린 여정은 수많은 독립투쟁의 현장과 마주하며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역사와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롄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하얼빈시에 다다른 순간, 생전 처음 방문하는 곳이었음에도 낯설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천만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가 안중근이라는 한 사내의 존재 때문에 익숙한 친밀감을 주었다는 것일요. 청초당(靑草塘)이라는 안 의사의 유묵 글씨가 새겨진 비석이 보존된 조린공원에서부터 안중근 의사기념관, 하얼빈역, 그리고 거사 이후 뤼순감옥으로 이송되기 전 구금됐던 옛 일본영사관 등을 둘러보면서 저는 차라리 하얼빈을 안중근의 도시로 부르고 싶어졌습니다. 중국의 초대총리 주은래가 ‘한중 양국의 항일투쟁은 안중근의 의거로부터 시작됐다’고 높이 평가했다시피 **하얼빈이라는 도시 곳곳에 남겨진 안중근의 족적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도 항일투쟁의 역사적 교훈을 일깨워주는 산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안중근의 발자취는 러시아 국경과 멀지 않은 쑤이퉁허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한 안중근이 우덕순, 류동하 등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 처단의 구체적 계획을 점검하고 실

행방법을 결정하는 한편, 부족한 활동자금을 모으려고 백방으로 발품을 팔았던 도시 쭉이편허. 하루 밤의 편안한 잠과 한 끼 식사까지 걱정해야 했던 당시의 상황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찡하게 저러왔습니다.

2009년 하얼빈 의거 백주년을 맞아 일반에게 공개되기 시작한 뤼순감옥은 안중근 의사뿐 아니라 수많은 애국지사가 투옥되고 순국한 한민족의 독립 성지와 다름없는 역사적 공간이었습니다. 한 시간 간격으로 입장이 허용되는 감옥의 문이 열리고 순로를 따라 걷다보면 처음 만나는 작은 건물이 안중근 의사가 머문 특별 감방인데요. 창문을 통해 들여다본 실내에는 침대 하나, ‘동양평화론’을 집필하고 유묵을 남긴 작은 책상 하나가 보존돼 있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긴 복도 양쪽의 감방들과 폭이 50cm도 안돼 보이는 독방과 고문실 등 당시 상황이 재현된 곳들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수십 수백 번 사진으로만 봤던 그곳. 마침내 두 눈으로 목격한 안중근 의사의 순국장. 하얀 조명이 비추는 그의 단정한 초상 위로 드리워진 외줄 올라미를 보는 순간,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벅처럼 몸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전율과 숨 막힘 속에서 일행의 눈가는 다 축축하게 젖어두고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서른한 살의 사내가 짧은 생애를 조국광복을 염원하는 제물로 기꺼이 바친 제단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네 번째 손가락을 자른 왼손의 손금이 선명한 유묵들이 기개를 증거하고 있는 안 의사의 특별 전시

공간은 단재 신채호, 이회영, 유상근, 최홍식 선생 등 한국독립운동사의 주요인물의 생애를 되새겨볼 수 있는 기록들이 전시된 공간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만주를 중심으로 이어진 독립투쟁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있는 기록들을 찬찬히 살펴본 뒤 안 의사가 순국한 3월 26일, 그의 시신이 실려나간 북대문 앞에서 다시 멈춰 섰습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감옥 뒤 공동묘지 어딘가에 묻혔다는 시신은 오늘까지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요. 몇 번의 유해 발굴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순국 110주년이 되는 내년에 다시 시도한다는 뉴스가 들려왔지만 안타깝게도 공동묘지가 있었다는 뤼순감옥 뒤편은 이미 아파트들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감옥을 나와 안 의사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진 뤼순 법원(지금은 뤼순인민병원)의 재판정 의자에 잠시 앉아 그의 생애를 축약한 영상물을 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7박 8일간의 여정은 마무리됐습니다. 직접 찾아가 두 눈으로 목격한 공간과 시간, 수많은 유명 무명의 독립투사들의 생애는 백년이라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역사였습니다. 이들의 고난과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릴 수 있었을까. 만주에서 만난 백년 전의 이름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지요. 

※이종형 : 시인. 1956년 제주 출생. <제주작가> 신인상 받으며 등단. 시집 <꽃보다 먼 저 다녀간 이름들> 출간. 시집에 수록된 ‘바람의 집’을 2018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서 가수 이효리가 낭송해 화제가 됐다. 5.18 문학상 본상 수상. 현재 제주작가회의 회장, 제주문화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제주문학의집 운영위원장.

※본문의 파란색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 점역(點譯)했습니다.